



구름문을 펼치다

- ▣ 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밭에서, 후원에서, … 운문사도량 안에서 땀 흘리는 학인스님들 무더운 여름 잘 견디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한 철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사교과 중수
- ▣ 또 한 송이의 꽃이 쪘습니다. 꽃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언젠가 다른 얼굴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건대, 그때에는 부디 우리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소서. / 사교과 무진
- ▣ 올해 여름! 더운 여름 속에 不安을 佛眼으로! / 사교과 범정
- ▣ 상추쌈과 매운 고추 한입, 운문사 별좌님들 반찬에 더위를 잊습니다. ㅋㅋ 부럽죠~!! / 사교과 현공
- ▣ 이 몸도 뚫릴 듯한 강렬한 여름 햇빛 아래. 어떤 존재는 쑥쑥 자라고, 어떤 존재는 말라 죽기도 합니다.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름 태양 같은 번뇌를 보리로! / 사집과 혜도
- ▣ 밭에서 갓 수확한 감자를 보면서 으쌰으쌰 나도 저렇게 싱싱한 열매처럼 크고 있구나!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 사집과 창일
- ▣ 네가 웃으니 나도 웃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는가? / 사미니과 현문
- ▣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에서 이렇게 좋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음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쉽지 않은 이 길을 걸어 오신 선배 스님들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새로운 도전에 응하고 있는 도반 스님들에 대한 존경이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 사미니과 도명
- ▣ 잘 참아주셔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다. / 사미니과 동호

雲門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생종하치래生從何處來 평성 |
| 06 | 추모특집 | 원왕생 원왕생 온 누리 빛으로 장엄하소서 편집부 |
| 08 | | 원해당 흥륜 학장스님 |
| 14 | | 애도哀悼라라 2015, 6월 25일 영역 |
| 16 | | 문수선원 선원장 혜운 스님 |
| 19 | | 슬퍼서 아름다운 290일의 여행 이야기 유승 |
| 22 | 교수논단 | 일연 선사와 운문사 ① 평성 |
| 26 | 운문, 운문인 | 공덕功德 편집부 |
| 28 | 담소 |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무여 |
| 30 | 편지글 | 51회 도반들에게 동욱 |
| 32 | 여름불교학교 | 응답하라! 2015 천진불! 억현 |
| 34 | 학인논단 | 고대인도 사상사思想史에서 본 봇다의 성도 ③ 푸진 |
| 38 | 想 | 산산아, 산산아 해운 |
| 40 | 차례법문 | 게으름 능관 |
| 42 | 특별탐방 | 불교 영화 감독 대해 스님 편집부 |
| 45 | 풍경소리 | 일타하화만원향—朵荷花瀨完香 명현 |
| 46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살자 선우 |
| 48 | 수행의 두레박 둘 | 대중 속에서의 '나' 치우 |
| 50 | 이 한 권의 책 | 나란 무엇인가 – 하라노 게이치로 혜능 |
| 52 | 운문논평 | 당신은 인연입니까 종윤 |
| 54 | 운문소식 | |
| 55 | 등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생종하처래生從何處來

명성 / 윤문사승가대학원 원장



생종하처래 사향하처거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부운자체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독유일물상독로 담연불수어생사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獨有一物常獨露 湛然不隨於生死

태어남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어서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태어남은 한 조각 뜯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죽음은 한 조각 뜯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네.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다운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사의 오고감도 또한 그려하네.
오직 한 물건만이 항상 홀로 드러나 있어, 생사를 따르지 않고 담연하네.

학인스님들은 방학 잘 보내고 왔나요?

지난봄에는 운문사에 큰일이 있었지요. 평생을 운문사에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학인을 가르쳤던 흥륜 학장스님과 어려운 시절 운문사 사리암 불사를 하고, 항상 신심있게 수행하던 문수 선원장 혜온 스님 두 분이 세연을 다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일이 나고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一大事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장스님이나 선원장 스님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한 그 누구라도 나의 이 몸과 인연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치문반 막내스님들 몇몇 빼고는 아마도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종하처래 사향하처거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태어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죽어서는 과연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은 싯달타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아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원도 다 들어줄 것이니 출가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러자 싯달타 태자는 부왕에게 이렇게 밀합니다,

“부왕이시여 저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시니 제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늙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부왕은 태자의 소원을 들어 줄 수가 없었고, 싯달타 태자는 단호히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간절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는 이제 不死를 얻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불교는 정확하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모든 경전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반야심경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모두 生死大事를 해결하는 묘책입니다.

우리 학인스님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화두를 딱 들고 잠에 들어야 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잠자리에 드는 좋은 습관을 익히는 여름 한철이 되기 바랍니다. ☺





지난,
봄꽃의 향기가 도량에 가득할 무렵.
여름의 신록이 도량을 물들일 무렵.
운문사승가대학 학장이신 원해당 흥륜 스님과
운문사 문수선원 선원장 정장당 혜온 스님.
두 어른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평생을 후학에 힘쓰시며 학인들의 스승이시자 도반이셨던 흥륜 스님,
운문사 사리암 원주소임을 맡으시며, 불사에 힘쓰시고,
문수선원의 선원장으로 회향하신 후 입적하신 혜온 스님.
두 어른스님들의 수행공덕으로
저희 학인스님들은 신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왕생 원왕생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
온 누리 빛으로 장엄하소서.

<三大願願>

1. 진실한 慶願을 无間증입에 편안히 하여
이 善根을 一念초에 근본성불을 얻어자마라
2. 품은 마음으로 無漏을 諦免하되 지이다
3. 바른진리 받아드려 身心, 財產은 떠나
여기로 住持를 하여 자마라~





明德 圓海堂 興輪 修行年譜

- 1943년 : 11월 8일 인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에서 엄부 고정희 님
자모 윤금년 님의 3남 2녀 중 차녀로 출생
- 1960년 : 강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4년 : 서울 성리암에서 법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65년 :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개 수지
- 1967년 : 약수암에서 하안거 및 동안거
- 1969년 : 범어사에서 慈雲和尚을 계사로 비구니개 수지
- 1974년 : 운문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 1977년 : 운문승가대학 중강 및 재무 취임
- 1978년 :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졸업
- 1984년 : 서울 성리암 주지 취임
- 1985년 : 민족문화추진회 유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1985년 : 운문사 明星 講師으로부터 전강
성리암 통학강원 개원
- 1987년 : 운문사 강사로 재임
- 1994년 :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 2002년 : 대한불교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 2002~2006년 : 운문사 제14대 주지 역임
- 2006년~2009년 : 대한불교조계종 수계산림 교수사 총 4회 역임
- 2009년 : 대한불교조계종 수계산림 니존증야사리
- 2011년~2015년 : 대한불교조계종 수계산림 니존증야사리 총 6회 역임
- 2006년~2012년 : 운문사승가대학 강주 역임
- 2012 ~현재 :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 2015년 5월 8일 11시 27분 : 세수 74세 법립 53년, 호거산 운문사 삼장원에서 원적



“오늘같이 비도 오고, 공부하기 좋은 날이지?”

紹
輪

“명등한테 전깃불 좀 끄라고 해!”

親
久

“이 반들 왜 아래. 진짜 이상한 반이네.”

“절도 하구 그래.”

“나는 염주 공장 사장이에요.



염주 고칠 것 있으면 다 가지고 와요.”

“길 좀 잘 쓸어~”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생사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열반종을 듣고도 아무것도 실감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가득 쏟아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재가 되어 사그라질 때까지, 그 재 속에서 몇 줌의 뼈로 남으신, 스님과 다시 마주한 시간 속에서 무상無常함에 한참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님께서 가신 후,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눈부신 봄날, 포행 나오셨다가 저희 곁에 잠깐 앉아 계시던 학장스님의 모습이 선연합니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편안한 미소로 도량을 바라보시던 그 모습, 기억은 아직 이렇게 생생한데……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학장스님, 어느 곳에 계신가요? 스님의 부재가 너무나 큽니다.

스님께서 사랑하신 운문사는 이제 봄을 넘어 신록이 가득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꽃잎 하나,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도량 곳곳마다 스님의 눈길이 스치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남겨진 저희들은 다시금 도량을 돌아보며, 학장스님을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스님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긋나는 것인지 몰라 학장스님의 말씀에 안절부절못하던 새내기 학인은 몇 해의 시간을 넘긴 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를 자연스레 알게 된다고. 그것은 단지 익숙함만으로 습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애정을 가진 이에게만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을.

‘학인은 나의 도반이자 스승이었다.’

학장스님, 말씀대로 스님께선 행^행과 배움으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훌륭한 스승이셨고, 언제나 가까이에서 저희들을 살피고 지켜주시는 따듯한 도반이 되어주셨습니다.

학장스님, 감사합니다.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저희들은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열반하신 그 날 이후, 반문해 보았습니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물어 도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얹은 답은 ‘무상無常’ 속에 있었습니다.

학장스님, 스님께서 걸어오신 자취대로 저희들은 하루하루 여일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학장스님, 본래 서원 잊지 마시고

속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소서. ☺

학장스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따라 걷다。





우리 학장스님
꽃구름 따라 다시 오소서。





애도哀悼래라* 2015, 6월 25일

– ‘삼보란 만나기 어려운 것 방일하지 말라.’ 시던 –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호거산을 흔들며 나직하게 열반종이 울릴 때,
흐르는 눈물을 안으로 말리며 ‘지금은 일을 해야
하므로 울 수 없어요.’ 그 날 이후 아직까지 스님
의 부재를 공감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방문을 열고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확연히 다가올
텅 빈 그 자리를 실감하지 못한 채. 스님의 49재일
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해 늦봄인가 명성 회주스님께서 알뜰히
사다 심으시고, 흥륜 학장스님이 물을 주어 보살
피며 ‘나무야 몸살하지 말고 잘 살아 내거라.’
많이 아팠던 천온사 보리자 나무가 자리를 잡고
꽃향기 가득 극락을 만들더니, 어느덧 알알이 덕
성의 모습을 갖추며 報恩의 열매 익어가고 있습
니다.

의연히 산처럼 이겨내시던 투병의 나날들, 몇
번의 항암과 방사선 앞에서 혼자 느꼈을 한없는
孤獨. 돌고 또 돌며 서성이던 비로전 뜨락. 천천히
도량을 가로질러 장군평으로 향하시던 천근같이
무거워 보이던 뒷모습, 한없이 앓아계시던 정자나
무 밑의 적막.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 몇 번을 쉬
시며 먼저 들어가라 등을 미시던, 하염없이 기다
려드리지도, 자분자분 따뜻하게 살펴드리지 못한

후회. 위로가 되어드리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발자국마다 고이던 한없는 외로움이 무거워
서, 언제부터인가 버릇이 되어버린 침묵, 그것이
스님에게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채찍이 되었으
리라는 생각에 황망스럽습니다. 늘 저희 곁에 함께
계시며, 더 밝게 웃을 날이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어차피 혼자 감당해야 할 실존의 무게였노라
고 病과 함께 화해하고 용서해 오신 스님의 노력
과 지구력은, 한평생 삶의 궤적처럼 참 아름다운
인내와 끈기였습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을 불렀을 때 이젠 침묵 속에
먼 길을 떠날 준비를 마치신 듯 평온하였습니다.

가까운 벗으로 늘상 그 자리를 지키시며 먼 길
에서 돌아오는 학인들을 맞이하시고, 은행나무를
지나 해탈문 밖에 서서 떠나는 후학들의 인사를
받아주시던 당신. 뒷모습을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
로도 힘이 되어 주시던 분, ‘잘 살어’ 어머니처럼
낮은 그 목소리 들리는 듯합니다.

청띠 백띠 이마에 매시고 늘 학인을 바라보고 살피시며 시비하고 챙기는 기쁨에 사셨지요. 자신에겐 端雅 嚴正하셨고, 맡은 소임에는 성실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시며 먼저 하지 않으셨고, 좋은 책 잘 읽었노라 격려하시며 남보르게 돋고, 도울 일을 만나면 모금에 나서던, ‘홍륜친구’를 소리 없이 실천할 뿐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려고 부르지 않아도 먼 길을 달려와서 소리도 없이 일을 마치고 물결처럼 돌아가는 동문스님들, 당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不請之友 화엄보살의 모습이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삼보를 만났고, 경전 공부하는 것으로 평생수행을 삼았으니 원도 한도 없다.’고 하셨지요. 천리 밖까지 말이 전해지고 바람에 눕는 풀처럼 받아들여짐은 불법과 대중을 위한 평등한 공심이며 정성과 배려, 정직과 진솔 그리고 진정성임을 스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강사들을 위하여 내전을 논강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시고 잘못하면 꾸짖어 주셨지요. 서옹 큰스님 벽암록 강의를 비롯하여 육백시간 테이프 강설을 들으시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사셨습니다.

스님과 함께 본 사마천 사기열전, 카마다 시계 오의 중국불교사, 지도론, 종경록, 선림승보전, 현구집, 법원주림, 입보리행론… 신수대장경 깨알 같은 한자를 새겨가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였음을 늦게사 알게 되었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특강 시간엔 老病의 몸을 끌고 학인들 속에 함께 하셨지요. 누군들 그 好學을 따르겠는지요. 위로 공경하고 아래를

다독이며 치문 농엄 금강 기신 화엄을 강설해주시며 소리 없이 저희들 마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정 고맙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날 새벽꿈에 빛나는 장삼에 바랑을 지시고 강의를 마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둥대며 따라가다 눈빛 선량한 하얀 소를 만나 해야 할 숙제를 기억해 내고 발길을 돌렸지요. 아직 해야 할 제 몫의 일이 있는 게지요.

스님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그리며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雲門人이 되겠습니다. 길이 되고 목탁이 되고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고달팠던 순간들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세상의 한 모퉁 이를 환하게 비추어 주는 축원이 되겠습니다.

생사에 돌고 둑이 쉼이 없어 만나면 반드시 이별이 있는 것인데 어찌 이리 슬픈지요. 다시 그 음성 듣고, 그 웃음 볼 수 있기를 기다리며 하마 스님이 그립습니다.

‘雲去雲來天本靜이요
花開花落樹常閑’이라

教海龍象 三藏院에서 스님을 기다리며
心香一爐 영덕 합掌九拜

* ‘애도래라’는 ‘애닮습니다’의 古語.



문수선원 선원장 淨藏堂 慧隱 修行年譜

- 1958년 : 공주 마곡사 은적암에서 하연스님을 은사로 특도
1959년 : 마곡사에서 하연스님을 은사로 일현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개 수지
1962년 : 서울 청룡사에서 전명성스님께 사교과 수료
1965년 : 양산 내원사 선방에 입방
1966년 : 양산 내원사에서 1년간 재무 역임
1968년 : 범어사에서 유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개 수지
 내원사 선방을 시작으로 제방 선원에서 10안거 성만
1977년~1990년 : 청도 운문사 사리암 원주 역임
1985년~1988년 : 운문사 총무 역임
1990년~1996년 : 불은사 주지 역임
1997년~1998년 : 운문사 부주지 역임
1998년~2002년 : 운문사 주지 역임
2002년 : 운문사 内 문수선원 선원장 취임
2015년 6월 19일 : 세수 80세, 법납 57년, 운문사 문수선원에서 원적

혜은 스님 유언장

권속스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병이 재발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조용히 한 생각 참구하다 회향하도록 해주오.

묘전 스님 조문 때 감명 받은바 있어 부탁하노니 조의금이나 화환을 사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알아서 하도록 해요.

꽃값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보고 낭비라 생각되어 부탁하니 간단히 쓰도록 하고,
고임새는 하지 말고 화장 후에 유골을 수습하지 하지 말고 바다에나 강물에 뿌리도록, 채는
여려 곳을 돌아다니지 말고 한곳에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뜻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절집에 와 시온을 무겁게 지었으니 무엇으로 갚으리요.

병고 때문에 보우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권속들에게 너무 많은 고생을 시키고 빚을 많이 지어 다음 생에 갚을 일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오.

부처님 제자 되어 한없는 은혜를 입고 복 수용을 누렸으니 세세생생 불퇴전하여
부처님 혜명을 이어 불은에 보답코자 간절히 서원하옵고, 영산회상 불보살님 굽어 살피사
마지막 회향을 잘하도록 비옵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반야바라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문수선원에서 혜은 삼가 씁니다.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몇 자 적어요.

지난여름 방사선 치료 후 하반신을 못 쓰고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중세로 고통 받으면서 돌이켜 보니 수행자로서 공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병고로 병원 출입만 하며 권속들 힘들게 하고 시온만 무겁게 졌으니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생각 끝에 언론으로 본 장기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구해서 백분의 일이라도 시온에 보답하고자 장기기증을 결심하고 전문가에 문의하니 사후 6시간 내에 안구 각막만 가능하다기에 권속들과 상의도 없이 서약을 했으니 내 뜻을 이해하고 따라 주길 부탁합니다.

권속들의 지극한 정성과 효성이 없었으면 어찌 수명을 몇 번이나 연장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으리오.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의 빚 갚고자 함이니 따라 주길 부탁하며 응급시 신속하게 생명나눔본부로 연락해서 성사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추신 : 문수선원에서 초상 치는 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니 경주 동대 병원에서 간단히 해주길 바래요.



“출가할 용기를 내다니, 참 징하구나.”

공주 읍내 버스정류장에 마중 나온 은사 스님은 믿기지 않는 듯 내 등을 두드리며 흐뭇해하셨다. 그렇게 스님의 뒤를 따라 사십릿길을 걸어 마곡사 은적암으로 들어갔고, 한평생을 산중에서 살았다. 절집생활이라는 게 신선같이 사는 줄만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나무로 불 때는 부엌이라 거의 매일 황토를 칠해 검게 그을린 부뚜막을 말끔히 해놓아야 했고, 솜바지 저고리를 벗고 손질해야 했다. 대중스님들 예닐곱 분에 행자가 둘이었으니,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빨래를 손질하다가 손등이 터져 피가 옷에 묻어 다시 해야 했고, 곱게 풀 먹여 달립질한 옷을 다시 벗라고 물 속에 집어넣는 은사 스님의 꾸중만 있을 뿐이었다. 행자시절엔 참을 인忍자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끝없는 하심下心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니, 이렇듯 평생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수시로 고개를 들곤 했다.

훗날,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기 직전에 나는 웃으며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네 아만통이 세어 보여 일부러 그랬지’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하긴,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는 행자의 스물세 해 동안 키워온 아만심을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꺼냈겠는가. 그 때 내 마음을 사

로잡은 것은 은사 스님의 참선 정진하는 모습이었다. 스님의 나이 마흔 안팎이었는데, 인법당의 뒷문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문을 막은 채 참선에 몰입해 있던 스님의 모습은 눈부셨고, 내 눈엔 부처님 바로 그것이었다. 일에 파묻혀 지내다가도 틈만 나면 큰방과 통해 있는 지대방의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며 신심을 키웠다. 참선의 원리를 몰랐으나, ‘바로 저 공부구나’ 하는 깨침이 마음속 깊이 물결쳐 왔고, 저리 공부 열심히 하시니 공양 맛있게 지어 올려야지 하는 마음이 우러나왔다. 그리고 한평생 선객으로 일관한 스승을 죽이 나 또한 평생 마음공부 하나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절 문구멍으로 들여다본, 적정에 들었던 스승의 강렬한 그 모습 때문이었다.

그 시절 은사 스님은 늘 그러셨다. ‘하루하루 복 짓고 살아야지 복 감하면 안 된다. 젊어서부터 부처님 시봉 질하고 대중스님들 시봉하여 복을 지어 놓아야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장애가 없다.’ 그 땐 일에 치여 그런 말씀을 새길 겨를도 없었으나 훗날 생각하니,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었나 싶다. 행자시절이란 훗날 내 공부를 하기 위한 복을 쌓는 세월이며, 세속에서 익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마저도 버려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저 옛날 행자시절, 나는 스승의 공부를 보며 초발심을 내었고 신심을 키웠으며 많은 것을 버렸다.

몇 해 전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 큰 손주상좌가 사리암에서 기도에 들어갔더란다. 한 번 절하고 ‘우리 노스님 하루 연장’, 또 한 번 절하고 ‘우리 노스님 하루 연장’, 하루 일종식 하고 세 시간 잠자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다. 무얼 더 바라겠는가. 저 행자시절 호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렇듯 수행자의 청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삭발염의한 채 걷는 출가의 길이 먹고 입는 것을 위한 방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처 되는 길이기에 이 길을 가는 것, 그런 원願 하나 품은 채 가다보면 이 생에 성취되지 못하더라도 그 인연 남아 내생에 또 닦지 않겠는가. 후회스럽게 살았다면 후학들에게 이 길을 권할 수 있었겠는가.

- 혜운 선원장 스님의 수행답 글 중에서 -

슬퍼서 아름다운 290일의 여행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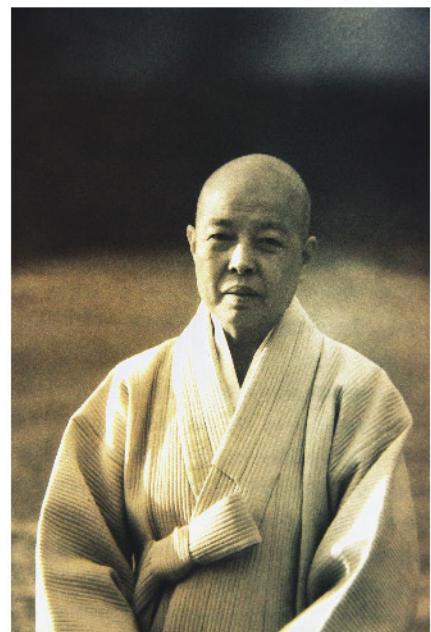
노스님을 추모하는 글을 써달라는 운문지 편집장 스님의 연락을 받았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노스님이 이젠 추모글로 기억해야 할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걸 실감해야 한다. 49재를 지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실감치 못했는지, 이런 비현실감, 오랜 간병으로 몸이 지친 손주들도, 은사스님도, 우리 중 그 누구도 노스님의 열반을 실감치 못하고 있다. 전화가 오면 지금이라도 당장 문수선원으로 달려가야 할 것처럼, 노스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2014년 8월 29일

늦은 밤, 사제스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왔다. 노스님의 복통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급하게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노스님을 모셨다. 대장 천공, 이름도 생소한 병이었다. 두 번의 대장암 수술, 그리고 또 한번의 자궁내막암 수술, 이어진 방사선 치료…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 생겨난 병….

의료진의 판단은 수술 이외는 방법이 없다 했다. 그러나 고령이신데다 이미 두 번의 대장암 수술로 인한 심한 장협착 등을 감안할 때 수술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아무도 선뜻 선택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노스님께서는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내리셨다. 그리고 운문사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 병원을 나서면 무조건 마지막 이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는 사이, 노스님은 지옥과 극락을 오가셨다. 중환자실을 다녀오신 후 노스님은 이제 그만 됐다고 하셨다. 이젠 갈 때가 되었으니, 다들 놓으라고 하셨다. 노스님께서는 당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그때마다 매번 대중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병실에 입원해 시온을 입고 있는 것이 못내 편치 않으셨던 모양이다. 완강하게 퇴원을 원하셨다. 아픈 사람이 있어야 의사들도 할 일이 있고, 환자가 있어야 병원도 돈을 벌



고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노스님께서는 평생 시온을 제일 무서워하셨다. 내 수행으로 녹일 수 없는 공양은 어떻게든 대중에게 돌리셨던 분이다. 어쩌다 보시금이 생기면 선원에 공양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힘닿는 데까지 보태곤 하셨다. 수행자는 병고로 암약을 삼으라 하셨듯이 노스님은 평생을 따라 다닌 병마를 당신의 좋은 도반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이다. 그런 분이 마지막 선택을 하셨다. 이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무도 기겁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노스님과 함께한 우리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8일

모든 것을 각오하고 드디어 운문사 문수선원에 돌아왔다.

삼십년을 넘게 살아온 운문사. 꿈에도 그리운 운문사! 그곳으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이미 회복할 수 없음을 직감한 당신께서는 병원 침상이 아니라 당신이 늘 계시던 익숙한 그곳에서 금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하셨다. 캇기를 스치는 친바람도, 겨울의 초입에 잎을 다 베리고 나목이 된 나무들도 모두 당신의 도반. 그 도반들 품속에서 길고 길었던 이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일 게다.

노스님은 여름철에도 방문을 꼭꼭 닫고 지내셨다. 행여 문을 다 열어 놓거나, 미처 다 닫지 않고 빼죽이 열려 있으면 크게 야단을 하셨다. 파리나 모기 같은 날벌레가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당신이 금생에 이렇게 병고로 고통 받는 것은 모두 지난 생의 살생 과보 때문이라 믿고 계셨다. 그러다 보니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결코 죽이는 법이 없었다. 살생을 피하기 위해 그 무더운 한여름에도 노스님께서는 방문을 꼭꼭 닫고 계셨던 것이다.

운문사로 내려온 후에도 슬프고 아름다운 여행은 반 년 가까이 계속 되었다.

누가 봐도 힘겨운 투병생활이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노스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 되었다. 일 년 가까이 침상에 누워계신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솜털같이 부드럽던 당신의 피부, 그 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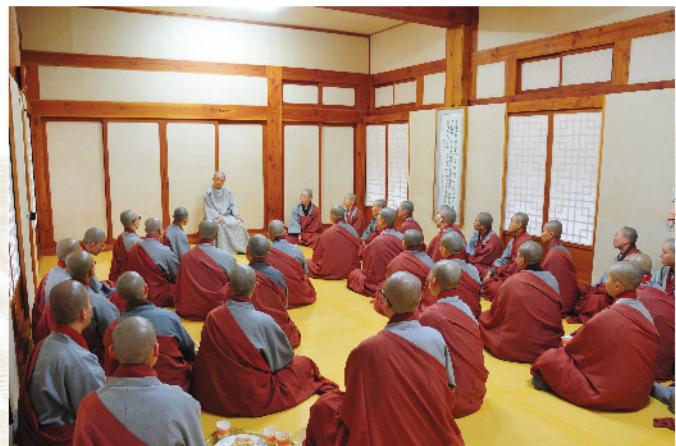
평소 다소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라 편하게 결에 다가갈 수 없었던 분인데 병상에 계신 모습은 살아온 세월이 오해다 싶게 너무 다정 다감하신 분이셨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떡하니 걱정하시고, 수시로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힘이 들 땐 더러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하셨지만, 그런 순간에조차 노스님은 우리 눈에 그저 귀엽고 예쁜 환자에 다름 아니었다.

2015년 6월 18일

운문사 회주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 그리고 그동안 노스님 곁을 지켰던 상좌, 손주들의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문수선원을



가득 채운다. 노스님께서 숨을 가쁘게 물어쉬신다. 염불 소리가 한층 더 깊어 진다. 상좌 보우 스님이 노스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스님,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니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것인데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한 생각, 놓치지 마세요. 이제 거기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갈 터이니, 환희심 가득 길 떠나시면 됩니다. 그 순간 노스님은 ‘웅, 웅’ 하고 두 번을 힘겹게 대답하시고 이내 호흡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눈빛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나서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여행길에 이제 홀로 오르셨다. 많은 분들의 지극한 배웅을 받으며 떠나신 여행길… 그 길은 진정 행복한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행은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니까요.



院禮辭文

노스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남아 있는 저희들의 욕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불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책도 해 봅니다. 하지만 함께 한 290일의 여행 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른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환자는 어떤 마음으로 간병해야 하는지… 때론 힘들고, 때론 안타깝기도 했지만, 노스님의 환한 미소 한 번이면 그 모든 고통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신비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노스님의 병마는 살생으로 인한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살행을 익히게 하는 뜻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 몸을 던진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겠습니다.

이제 5재가 다가옵니다. 노스님 한 분을 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당신의 상좌 보우 스님은, 노스님 방에 걸려 있던 사진이 영정이 되어 영단에 모셔진 것을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님 사진이 왜 저기가 있느냐고 때로 껴이꺼이 울기도 합니다. 죽음조차 초연해야 할 수행자가 무슨 애착에 저리 힘들어 하나 채망하지 마십시오. 생로병사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영글지 않겠습니까?

노스님!! 당신을 위해 염불하는 스님들이 속환사바 하시어 광도 중생하라 축원하더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마십시오. 80평생 병든 몸으로 힘겨운 수행 하셨으니 극락세계 좋은 곳에서 충분히 쉬다 오십시오. 다음 생에는 건강한 남자의 몸 받고 싶다 늘 말씀하셨듯이, 건강하고 잘 생긴 비구 몸 받아 저희 곁으로 다시 오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스님! 우리 노스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품 속에서 법열을 누리소서…

노스님 떠나신 지 서른하루 되는 날
문도를 대표하여 손주 유승 삼가 썼습니다. ☺

일연 선사와 운문사①

명성 / 운문승가대학원 원장

목 차

1. 서언
2. 운문사의 창건과 내역
3. 일연 스님의 생애와 성품
4. 일연 스님의 저작과 삼국유사
5. 일연 스님과 운문사
6. 결어

1. 서언

일연 스님(1206~1289)은 고려조 무신란 이후 대몽항쟁기를 거쳐 원지배시기에 사셨던 분이다. 『삼국유사』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스님은 충렬왕 3년 (A.D. 1277) 왕명에 의하여 운문사에 주지로 부임하여 4년여 동안 머물렀다.¹⁾ 이 동안 스님은 『삼국유사』를 탈고하였으며²⁾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

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의 문풍門風을 드날려 고려 후기 불교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³⁾

운문사와 일연 스님의 관계는 스님께서 운문사 주지로 계셨을 뿐 아니라 스님의 示寂時 스님의 門人인 진정대선사 법진(청분)이 운문사 주지로 있으 면서 스님의 행장을 찬하여 행적비를 운문사 동록에 세웠던 것⁴⁾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운문사가 비구니 전문강원으로 명실공히 승가대학으로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것도 일연 스님의 교학敎學과 선풍禪風의 음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운문사의 창건과 내역 및 스님의 생애와 성품 저서 등을 살펴보 고, 스님과 운문사의 인연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스님에 관계된 자료는 『삼국유사』와 인각사麟角寺에 있는 비문碑文밖에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생애 등을 살펴보기가 어려우나 『고려사』『고승전』 등의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강이나마 밝히고자 한다.

2. 운문사의 창건과 내역

운문사는 경상북도 청도읍에서 동쪽으로 약 백 리 지점에 위치하고 운문면 소재지인 대천에서 남 쪽 계곡을 따라 삼십 리가량 되는 거리의 운문면 신 원동 호거산虎踞山(일명 운문사)에 자리하고 있다. 중첩한 산줄기가 행인을 부르고 호거虎踞의 영산靈山이 길손을 반겨주는 곳에 일대가람一大伽藍이 있으니 바로 청도의 대표적인 고찰인 운문사이다.

신라 통일의 중추 역할을 한 화랑도가 창립될 무렵인 신라 진흥왕 18년(A.D. 557)에 한 禪僧이 이 곳에 들어와 금수동(지금의 북대암 옆에 그 유허가 있음)에 소암小庵를 짓고 삼 년 동안 수도한 결과 해안이 열렸다. 그리하여 진흥왕 21년 (A.D. 560)에 절을 짓기 시작하여 7년에 걸쳐 중앙에는 대작갑사 大鵠岬寺(현재의 운문사), 동쪽 九千步 지점에 갑사嘉瑟岬寺(지금은 폐사됨), 남쪽 七里되는 지점에 천문갑사天門岬寺(지금은 폐사됨), 서쪽十里 되

는 곳에 대비감사大悲岬寺(지금의 대비사), 북쪽 八里되는 소보감사所寶岬寺(지금은 폐사됨) 등 五岬寺를 창건하였다.⁵⁾ 이때에 왕이 승지에 절이 창건되었다는 말을 듣고 원찰로 삼았다고 한다.

운문사는 창건된 이래 여러 차례 중창과 보수를 거듭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중창은 원왕 국사가 하였다. 국사는 중국에서 돌아온 진평왕 22년(A.D.600)에 경주 황룡사 皇龍寺에 있다가 곧 운문사에 와서 중창을 하고 3년간 머물렀다. 이어 가슬감사로 옮겨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점찰보占察寶⁶⁾를 설치하여 점찰법회를 열었다. 또 화랑인 귀산貴山과 추항籌項에게 세속오계를 전수하여 화랑정신의 근본으로 삼도록 했으며 수나라의 왕세의가 왔을 때 황룡사에서 百座道場백좌도량⁷⁾을 열었는데 국사께서 맨 上座에 앉았다고 한다. 진평왕 30년(A.D.608)에 고구려가 신라의 변방을 자주 침범하자 이를 방어하고자 원왕 국사가 수나라로부터 30만의 원군을 지

원받기 한 「결사표乞師表」도 이 곳 대작감사(운문사)에서 쓴 것으로 추측된다.

제2차 중창은 보양 국사가 하였다. 국사는 서장, 당 등을 두루 다니면서 학문을 닦고 선교禪敎를 대성하여 귀국하였다. 국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던 중 서해 중간에 이르자 용왕이 그를 용궁으로 맞아 들여 불경을 염송하게 하고 금빛가사를 주면서 龍子인 리목璃目에게 국사를 모시고 가게 하였다. 이에 용왕이 국사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지금 삼국이 요란하여 아직 불법에 귀의하는 군주가 없지만 만일 내 아들과 함께 본국인 작감에 들어가 절을 짓고 있으면 수 년이 못 되어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와 삼국을 평정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⁸⁾

그리하여 국사가 고려 태조 13년 (A.D.930)에 중국에서 돌아와 오감사五岬寺를 중창하였다.⁹⁾ 고려 태조 20년 (A.D.937)에 태조는 삼국을 재통일한 후 보양국사가 오감사를 중창하였다는 말을 듣

1) 「上印作四年丁丑 詔住 雲門寺 大闡玄風」「高麗國義興華山 曹溪宗 麟角寺迦智山下 普覺國尊碑銘并序」(이하 인용시 일연비명이라 약칭함) 麟角寺誌七張下.

2) 「一然作品集」解題, 형설출판사 1977. 黃現江.

3) 普覺國尊一然에 대한 研究, 韓國史研究 26. 蔡尚植. 1979. pp.42~58.

4) 「門人雲門寺住持大禪師法珍 狀師之行. 聞于上 上令撰辭臣學識 荒淺 不足以光揚至德故過往數年 靜既不已 命亦難 謹爲之序而銘之曰」麟角寺誌九張下 藏濟禪附編

5) 「雲門寺事蹟」(朝鮮寺刹史料)上「五刹者 今寺之東九千步許有嘉瑟岬寺 南七理半有天門岬寺 西十里許有大悲岬寺 北八理許有所寶岬寺. 中有大鵠岬寺 今雲門是也」 그런데 오감사의 명칭이 「삼국유사」(보고이목)조의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운문사사적」에 따른다. 「삼국유사」에는 대비감사 가슬감사 대신에 소작감사, 가서감사로 되어 있다.

6) 占察寶 법회의 하나로서 占察經에 의한 법회이다. 신라 원광법사가 점찰보를 만들고 이 법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에 언급.

7) 百座道場 (百高座) 법회 이름. 사자좌를 백을 만들고 큰스님네를 모셔다 설법하는 큰 법회로, 신라 진평왕 35년 (A.D.613) 7월에 수나라 사신 왕세의가 왔을 때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을 맞아들여 경법을 말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8) 「삼국유사」 권4 寶囊梨木條

9) 보양 국사가 장차 폐사를 부총시키려고 북령에 올라가 바라보니 땅에 오종황탑이 있었다. 내려와서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해옹이 작감이라 한 말을 생각하고 그 곳을 찾아가 땅을 팔더니 과연 유적이 무수히 있어 이것을 모아 쌓아올려 탑을 이루니 남은 벽돌이 없었다. 이것으로서 전대의 절터임을 알 수 있었다. 중창을 마치고 이름을 작감사라 하였다. 전자의 대작감과 후자의 작감사는 모두 고려 태조 20년 (A.D.937)에 운문선사로 사액하기 전 동사의 이칭이다.



일연 스님의 초상화

고 ‘운문선사’ 사액과 전지 오백結¹⁰⁾을 내렸다고 한다.¹¹⁾

제3차 중창은 원옹 국사가 고려 인종 7년 (A.D. 1129)에 운문사 주지가 되어 허물어지는 절을 다시 중창하고 법도를 세워 전국 제2의 선찰이 되었다. 이에 인종은 전지 2백결과 국노비 5백명을 운문사에 내려 만세향화萬世香火토록 하였고, 국사의 공적을 추모하는 비를 세우게 하였다.¹²⁾ 또 삼보원三寶院 35간을 절 북쪽 3리 지점에 설치했으며, 염성고鹽城庫 13간을 절 서북쪽 3리 밖에 세웠다. 대천원大川院 2백결은 삼보원에 속하게 하여 염성고와 같이 향화 때의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게 했으며 신수, 신원 3백결은 향화 때 정제미로 비축케 하고, 노비 5백 명은 공포貢布를 걷어 들여 국사의 향화를 받드는 이들의 의재衣財로 삼게 하였다.

고려 충렬왕(A.D.1277)때 일연 대사가 주지로 주석하였다. 대사의 행적비가 절 동쪽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일연 대사에 관해서는

뒤에 서술하기로 한다.

제4차 중창은 임진왜란 뒤 숙종 16년 (A.D.1690)에 설송연초 대사가 왜란 때 허물어진 절을 중창하여 옛 모습을 되찾게 한 것이며, 제5차 중수는 순종 1년(A.D.1907) 설악 대사가 하였으며 이어 궁파 대사가 제6차 보수를 하였다. 1913년 고전 선사가 제7차 보수를 하였고 다음 금선 선사가 제8차 수창을 하였다.

운문사에는 많은 암자와 이적異蹟들이 남아 있다. 사리암은 운문사 남쪽 10리 지점에 있으며 보양 국사가 처음 창건했는데,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낙산 홍련암과 함께 한국의四大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신암은 운문사 입구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선조 말에 최현화 화상이 초창하였다. 내원암은 운문사 동쪽 골짜기에 위치하는데 원옹 국사가 초창하였고, 북대암은 신승이 小庵으로 초창한 뒤, 원광, 보양, 원옹 국사가 중창하였다. 사굴四窟로는 동쪽에 사리굴, 서쪽에 소방굴, 남쪽에 원앙굴, 북쪽에 묵방굴이 있으며, 사비四碑로는 원옹 국사신도비, 노비전답비, 일연선사행적비, 운문선사사액비가 있었는데 이중 원옹국사신도비만 현존하고 있다.

이적으로는 호거대虎踞臺, 약야계若耶溪, 리목소璃目沼 등이 있다. 호거대는 절 서쪽 산기슭에 있는데 바위의 모습이 범이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불여진 이름으로 지리학설상 운문산의 요지가 되고, 호거산의 산명 유래도 여기에 기인한다. 약야계는 오백전 뒤에 있는데 날이 가물 때도 물이 줄지 않는다고 하며, 보물 208호로 지정된 청동호(일명 감로준)가 이곳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¹³⁾ 리목소는 절 서남쪽에 있는 소인데 보양 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서해 용궁에서 데려온 용왕의 아들 리목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운문사에는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어 찬란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것만 해도 금당 앞 석등(보물193호), 청동호(보물208호), 원옹국사비(보물316호), 석조여래좌상(보물317호), 사천왕석주(보물318호), 대웅전 앞 동

서탑(보물678호), 대웅보전(보물835호)등이 있으며, 천연기념물 180호로 지정된 처진 소나무(盤松)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내원암으로 가는 길목에 10여기의 부도가 있으며 범종루의 범종, 조영당에 봉안되어 있는 원광 국사를 비롯한 11명의 고승 대덕의 초상화 등 많은 유물이 전하고 있다.

현존 건물 가운데 비로전, 좌암, 만세루, 금당, 오백전, 명부전, 관음전 등은 원옹 국사가 초창하였으나 소실되어 대부분 조선조 중엽과 일제 때에 중창한 것이다. 웅진전과 칠성각, 회성당은 비구니 태구 스님이 창건하였고, 1977년 필자(명성)가 주지로 부임한 이래 범종 주조를 비롯하여 대웅보전, 범종루, 설현당, 청풍료 등 30여동을 신축 혹은 보수(10동)하였다.

불교교단 정화 직전에는 대처승이 잠시 살았는데 교단 정화 이후 1955년 비구니들이 들어와 비구니 금광 스님이 초대 주지로 취임한 이후 2, 3대 유수인 스님, 4대 묘전 스님, 5대 태구 스님이, 6대 혜운 스님, 7대 혜안 스님을 거쳐 1977년부터 1998년까지는 필자가 주지와 승가대학 학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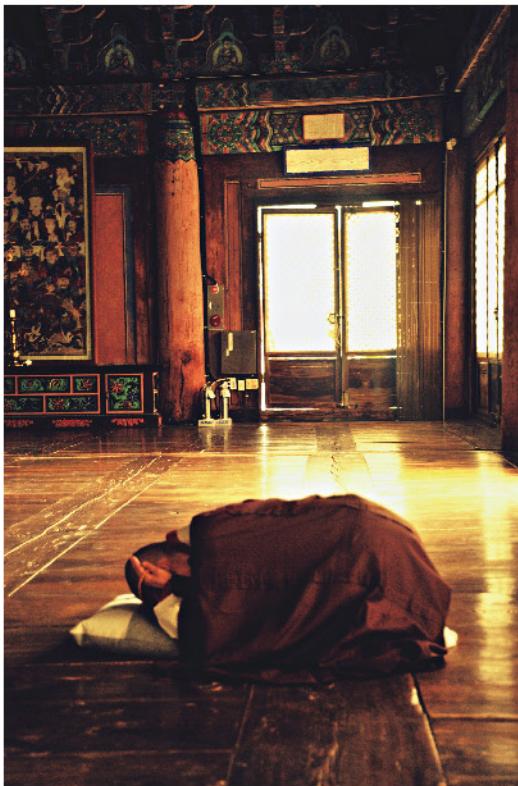
윤문사의 특수성은 많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학인들이 옛날의 청규와 일일부작—日不作—면 일일불식—日不食—한다는 百丈 스님의 생활신조를 본받아 생산하면서 수행하는 즉사이진即事而真

을 실천하고 있다. 삼국통일의 중추 역할을 한 화랑도의 수령장이던 이곳 호거산에 윤문사가 있고 윤문사에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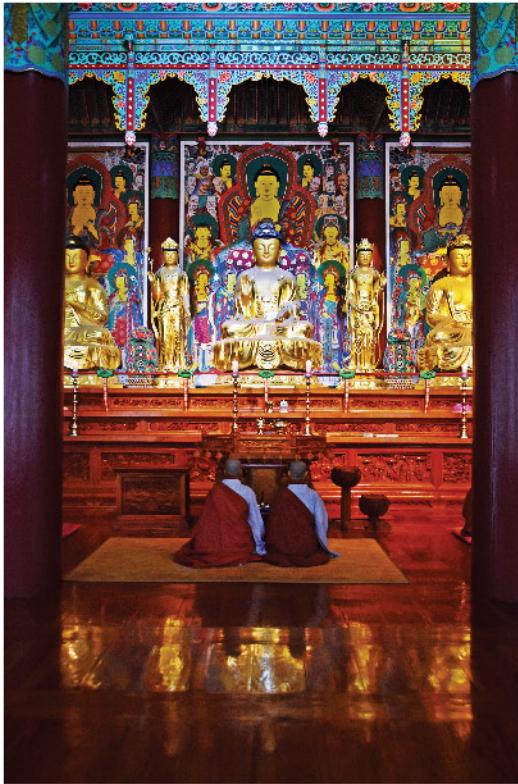
1958년 비구니 전문 강원이 개설된 이래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하였고, 1988년부터는 승가대학으로 바뀌어 시대에 부응하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확보하여 승가대학의 명분에 걸맞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다. 현재 250여명의 비구니들이 이곳에서 경학을 수학하고 계율을 수지 봉행하면서 윤문사를 거쳐 간 수많은 고승, 대덕들의 경지에 이르고자 정진하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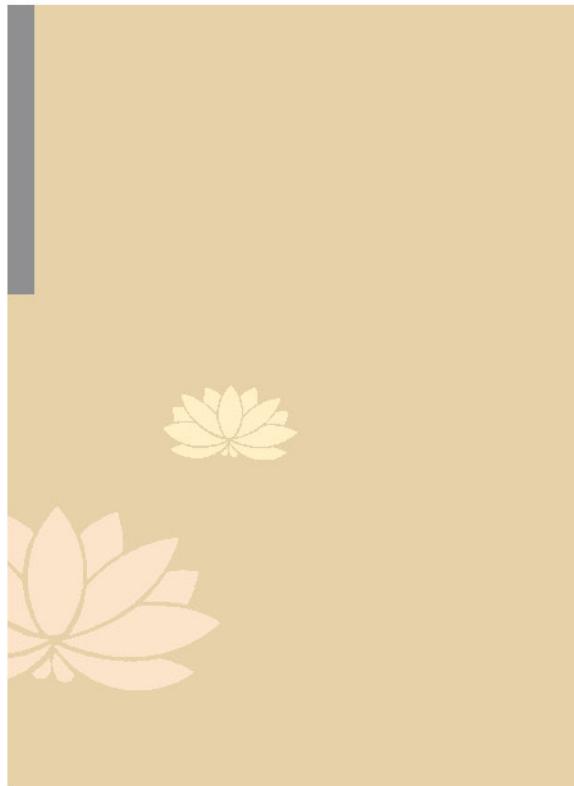
-
- 10) 結~①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논발 면적의 단위. 약 일만 파把(파는 종).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 광무 9년에는 5주척평방으로 정하였음.
10평을 한 뭇, 10评议한 짐, 10침을 한 총, 10총을 한 목이라 하였음 (10파를 1속, 10속을 1부, 100부를 1결이라 하였음.)
- 11) 「三國遺事」 卷4, 寶瓈梨木條「未幾太祖統一三國聞師至此創院而居, 乃合五岬田東五百結 納寺以清泰四年丁酉賜額曰雲門禪師」
- 12) 이 碑는 보물 316호로 지정되어 문문사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높이 5척 폭 3척으로 윤언이가 짓고 승탄연이 글씨를 썼다. 일제하에 파손되어 조각이 났으나 보수하여 보존하고 있다.
- 13) 청동호 일명 감로준은 임신년에 인담 선사가 꿈을 꾸어 얻었다고 전해진다. 인담 스님이 하루는 약야계가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한 승려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곳에 보물이 있으니 네가 가지라고 하였다. 스님이 꿈을 깨 후 그곳을 찾아보니 과연 그러한 물건이 있었는데 준樽안에는 서하집이 한 짤이 있어 같이 절에 보관하였다. 뒤에 그의 후손 되는 이가 원하므로 가져가게 했다고 한다.'



절하는 공덕으로 참회의 공덕이 생깁니다。



예불하는 공덕으로 공경의 공덕이 생깁니다.



공 功

덕 德

울련의 공덕으로 보시의 공덕이 생깁니다.



수지독송의 공덕으로 한량없는 공덕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무여 / 운문승가대학 42회 졸업생

잊지 못할 운문사 학인 시절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그것은 40여 년 동안 운문사에서 수많은 학인들을 지도해 주셨던 운문사 학장이신 흥륜스님의 입적 소식이었다. 이제는 스승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보다 어리고 철없던 운문승가대학에 막내로 입학하여 맡은 첫 소임이 바로 부반장이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날 정도로 치문 첫 철은 정신없이 바쁜 시절이었다. 빨래와 목욕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매일 꼬질꼬질해진 옷을 입고 운문사 경내를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치문 구절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겨를이 없어 방선만 하면 리어카를 끌고 밭에 나오거나, 후원에서 설거지를 했던 시절이었다. 지금 가보니 후원이 많이 바뀌어서 학인스님들이 예전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후원소임을 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러운 것은 예전에 없었던 설거지 기계와 행주 빼는 세탁기 같은 것이다. 예전에는 설거지 후 마른 행주로 닦아야 했었고, 그렇게 젖은 행주들이 다각실 지하에서 잘 마르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막내인 나는 반 스님들 기억에 매일 뛰어다니고, 특히 옷을 더럽게 빴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내 빨래와 같이 탈수하려는 도반이 없을 정도였다. 치문을 거쳐 사집, 사교를 보내면서 화엄경 사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교반 때는 입적하신 흥륜 강사스님이 주지스님이셨을 때, 시자 소임을 맡았던 기억이 난다. 음식 드시는 것이 소박하신 분이셨고, 항상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진정한 호학자이셨다. 그래서 저녁에 주지스님 방에 가보면 늘 손에 책이 들려 있으셨다. 사교반 시절부터 나의 화엄경 사경은 시작되었다. 사경 중의 최고였던 80권의 화엄경 사경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되었고, 손가락이 많이 아팠다. 그래도 하기 힘든 일을 마쳤을 때의 희열감은 더 배가되는 것 같다. 그렇게 나의 강원시절은 막내라서 바빴지만 반 스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교육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며 마무리되었다.

운문승가대학 후의 참선공부와 소임

운문승가대학 졸업 후 사교입선의 꿈을 안고 선방으로 향했다. 운수남자의 길이 너무 멎있어 보이고, 출가 전부터 꼭 참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불영사에서의 첫 철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불영사에서 소임을 맡으면서, 참선을 하면서 지냈다. 일단 앓는 자세를 연습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다. 그렇게 석남사와 해인사 약수암을 거치며 화두를 들며 선방에서 정진했다. 집중력은 그 때 많이 익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후 남해 학림사라는 곳에 인연이 되어 소임을 맡게 되었다. 나는 총무소임이었는데, 천일기도도 하고 어린이법회를 맡으면서 포교를 하게 되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절에 놀러 와서 법회에 참석하고 법회가 끝난 후에는 절 마당에서 공놀이, 전래놀이 등을 하며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 때는 내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어린이들이 나에게 순수한 부처님 마음을 보여 주고 있었던 선지식이었고, 도리어 내가 어린 이들에게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학림사에서 절 살림을 맡고 공부와 포교를 하며 바쁘게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학림사에서 소임을 마친 후에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편입하여 공부를 마쳤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스님으로서 불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람들에게 바르게 불법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내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그 후 동국대학교에서 중국에 문화탐방을 가게 되었고, 중국에 교환학생도 다녀오게 되면서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다.

동국대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지금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포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호암사에서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불광사 어린이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맡게 되었다. 불교대학 강의는 그동안 불교를 공부해 온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불광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자, 불교의 미래인 새싹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 주고, 불교에 대한 믿음을 돈독히 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 공부와 더불어 지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출가하여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포교로써 조금이나마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회향할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운문승가대학에서 4년 동안 신심을 다지고 공부했던 그 시절이 나의 스님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 주었으리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나의 후배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운문사에서 신심 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스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아지기를 희망해 본다. ☩

51회 도반들에게

동욱 / 윤문사승가대학 51회 졸업생, 현 도감 소임

도반스님 정진 여일하십니까?

이제 익을대로 익어진 윤문사의 여름철을 대자연과 함께 활발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졸업식날 결망 메고 떠나가던 뒷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떠나 보내기 아쉽기도하고 같이 떠나지 못하는 부러움이 가득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괜히 남아서 소임 산다고 한건 아닌지 후회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돌아 들어간 본사 생활은 아마 돌아온 행자생활이 아닌지요?

청도군수와도 안 바꾼다는 윤문사 화엄반을 보낸 뒤라서 더 힘들진 않은지요?

아니면 4년 동안 쌓아온 숙련된 생활태도로 인해 더 수월하게 지내시진 않은지요?

아무쪼록 계시는 곳에서도 항상 부처님 향기 맡으소서.

어느 곳이든 여름은 풀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곳 윤문사에는 풀 잘 자라게 하는 약을 밤새 누군가가 뿐만 듯이 잡초가 잘 자랍니다.

잡초보단 생육이 더디지만 지금 윤문사에선 야채장사 부러울 게 없는 야채가 밭을 메우고 있습니다.

때마다 사시공양에 나오는 상추 덕에 큰방 입선시간이 좋음과의 사투를 벌일 수도 있겠네요.

윤문사에서 가장 큰일은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학장스님을 떠나 보내드려야 했던 날입니다.

스님께서 많이 베풀고 잘 사셔서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영결식도 별무리 없이 잘 치렀습니다.

많은 졸업생스님과 제자스님 그리고 재학생스님들은 서로 자원하여서 소임도 살았고

우리 학장스님에 대한 향심을 느꼈습니다.

작년 봄철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학장스님 시자소임을 살 때 초반에는

저도 학장스님도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서로 맞춰 나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편찮을 때 제가 끊여 드린 ‘흰죽’으로 스승님과 시자의 관계가 회복(?)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장스님께서 도량을 아장아장 걸으시면서하는 잔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잠시 학장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장의 메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론 드린.

한월동안 수고가 많았음부하
훌륭하신 노스님과 선원장스님 밑에서
살다왔으니 복이 많은 스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사는 스님이 되기를
홍륜 드림.

동우 스님

동우 스님
한월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훌륭하신 노스님과 선원장스님 밑에서
살다왔으니 복이 많은 스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사는 스님이 되기를-
홍륜 드림.



도반스님들!

저는 홍륜 학장스님 말씀처럼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덥고 긴 여름철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가끔 시간 나면 운문사에 오셔서 산뜻한 청량음료가 되어주세요.
51회 도반스님들, 정진 여일하세요
운문사에서 동우 드림. ☩



응답하라! 2015 천진불!

덕현 / 대교파

7월.

고요한 운문사의 정적을 깨워주는 ‘우당탕탕! 천진불’이 오신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천진불이니 개성이 어마어마하다. 산에 나무들이 모두 똑같이 생기지 않고 하나하나 개성이 있듯이.

우리들은 천진난만한 부처님을 제접하기 위해 준비한다.

도량을 구석구석 쓸고 풀을 뽑는가하면, 본격적으로 교화부 소임자들은 미리 스스로 마음을 갈고 닦는다. 그래야만 청정한 성품의 천진불들과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탁! 소통되기 때문이다. 감로비는 허공에 가득하고 중생들은 그릇에 따라 고이는 비의 양이 다르다 하지 않았던가(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얹매이지 않고, 고요히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배로운 진리는 온 세상 가득한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 인연의 그릇에 따라 담는다고 하였으니, 여름철 동안 우리들은 그런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

천진불은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아이이다.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함이 없이 그대로 드러내놓는 순수한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준다가 아니다. 뚫망뚫망,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천진불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하는 대화는 그야말로 순진무구 그 자체다.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읜 그 자리에서 천진불과의 인연 고리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천진불에게서 진실한 청정심을 배운다.

하지만 천진불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발우’다.

7월 25일 만세루 AM 7시.

어린이들은 모두 발우에 담긴 공양을 맛있게 한다. 하지만 문제는 공양 후다. 어시발우에 담긴 승능으로 김치조각을 쪽쪽 문질러 점차 찬발우까지 넘어가면 고통스런 색깔로 변한다.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짬뽕(화합)되어진 그 승능’을 단숨에 목구멍으로 넘기기 어려워한다.



천불들에게 다시 새겨주는데, 이때 천진불 옆에서 함께 공양하는 담임스님과 부담임스님의 재치 있는 자未必가 꽂아 편다. 아이들의 승능을 대신 먹어주는 친절한 부담임스님이 있는가 하면 더러움과 깨끗함을 여원 도통한 담임스님의 덤덤한 액션도 있다. 이때 한 어린이가 스님을 따라한다.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는 친구에게 ‘승능’은 각자 먹고 난 그릇을 행구어 먹는 것이므로 더러울 것이 전혀 없다고 일러준다. 이럴 때 우리는 천진불들에게 감동을 받는다. 물을 뺏아들이는 스펜지처럼 아이들은 스님들이 일려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또 이와 반대로, 천진불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것이다. 관불灌佛이 따로 없다.

하지만, 물놀이 삼매에 빠진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담임 부담임 스님들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같이 놀아도 좋으련만, 아쉽기만 하다. 오로지 천진불들의 온순한 좌보처 우보처가 되어 안전사고 대비를 한다. 우리 운문사 대중스님들은 여름불교학교 기간 동안, 천진불이 이 도량에 오신 뜻을 새기며 모두 화엄성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유마경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곳이 도량’이라고 하였다. 매순간 청정한 마음으로 활활발발한 어린이를 만나고 즉사이진即事而眞한다면 매순간 마음공부가 될 것이다.

우리 운문인들은 곧 다가올 여름불교학교를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찾아올 상대적인 청정법신 천진불을 뵙고, 동시에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 모두 청정한 마음을 가지자!✿

고대인도 사상사思想史에서 본 붓다의 성도 ③

– 초기불전(初期佛典, Nikāya)
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

무진 / 사교과

목 차

- I. 서론
- II. 본 론
 - 1. 고대인도 사상사의 전개
 - 1) 리그베다
 - 2) 후기베다
 - 3) 우파니샤드
 - 4) 신흥 자유사상가의 출현
 - 2. 불교 성립과 발전
 - 1) 봄다의 성도
 - 2) 봄다의 전법
 - ①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설법
 - ② 전도선언(傳道宣言)과 전법
 - 3. 봄다의 성도가 끼친 영향
- III. 결 론

3. 봄다의 성도가 끼친 영향

봄다의 깨달음이 인도 사상사에 끼친 영향은 새로운 수행체계 및 수행자관의 정립이라는 두 측면으로 정의된다.

태자시절 그는 출가 전 물질적으로 풍족한 왕궁에서 쾌락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반면 출가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보낸다. 선정 수행자에게서 정신통일을 통한 고요한 경지를 배우고, 급기야 뼈를 깎는 고행에 몰두한다. 하지 만 끝내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선정은 천상에 태어남을 목표로 하며, 고행은 내세의 행복을 추구한다. 수행의 목적이 오직 선처善處에 도달하려는 마음일 뿐, 재생이 곧 고통이라는 근본 의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봄다는 이들의 폐해와 허무를 절실히 체감한 경험자였다.

성도 후 봄다는 양 극단을 떠나 얻은 중도의 진리를 널리 전파한다. 이는 당시 본말전도 本末顛倒에 놓여 있던 인도 전통 수행체계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화방식의 변화를 통해 정립된 새로운 수행자관을 들 수 있다. 『우파니샤드』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고대 인도는 스승과 제자가 가깝게 앉아 비밀리에 진리를 전해주는 방식을 고수했다. 외형적으로는 무척 제한되고 좁은 범위의 교수법이지만 이것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했다.

반면 봄다는 성도 직후³⁰⁾ 오로지 법에 귀의 할 것을 천명하고³¹⁾ 중생 교화에 나선다. 기존 교수법을 깨뜨린 데 이어 직접 교화 대상을 찾으나서는 포교를 멀친 것이다. 이 때를 기점으로 봄다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향해서 널리 배풀어진다. 인도 사상사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후 봄다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된 승가는 당시 계급 사회에 있어 혁명파도 같았다. 승가는 계급의 고하高下가 파괴된 최초의 수평적 집

단이었다. 봄다는 출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신 성분을 묻지 않았다. 사문에게 있어 귀천貴賤은 존재치 않았으며, 오직 출가한 순서에 걸맞은 대우가 따랐다.

III. 결 론

지금까지 고대 인도 사상사에 있어 봄다의 성도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후기 베다 시대 이후 사회는 상견과 단견이 대립하는 한편 고행주의와 쾌락주의가 공존하는 극단적이고 혼란한 분위기였다. 이 가운데 혁신적으로 등장한 봄다가 실천한 중도와 평등사상은 인도 사회에 새로운 지표를 심었다.

봄다 이전 인도 전통 사회를 지배하면 베다의 경우 불교와 달리 뚜렷한 개조開祖가 없으며 신화에 의존한 우상숭배가 주를 이룬다. 반면 초기불전에서는 고타마 샛다르타라는 한 역사적 실존인물의 수행과 깨달음, 전법의 내용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근대성을 띠는 것이다. 또한 교리 설파의 방법론이나 신앙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존 종교와는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초기불전을 살펴보면 봄다가 제자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맹신을 지양할 것을 당부한 대목이 눈에 띈다.

옛목에 의지하여 … 강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한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 ‘이 옛목에

의지하여 …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왔다. 참으로 나는 이 옛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내가 갈 곳으로 가야겠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그 옛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 한 것인가? …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대들에게 옛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했나니,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옛목에 비유하여 그대들에게 설한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법들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리.³²⁾

이 옛목의 비유는 봄다의 가르침을 더 이상 사실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단지 특정 상황에서만 상대적인 실천적 유용성만을 가진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이 실용적인 목적을 성취하면 그 이상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³³⁾

때문에 그는 목적지인 열반의 언덕(彼岸, Nirvana)에 도착하고 나면, 더 이상 운송수단에 불과한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는 누구나 옮바른 법을 만나면 깨달을 수 있음을 규명함과 동시에 절대적 믿음과 신화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기존 세계관을 부정하는 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사상사에 있어 봄다의 등장이 지니는 역할은 기존 폐쇄적 세계관의 부정에서 더 나아가 신분제 사회 구조를 향한 개혁으로 정리된다. 인도는 베다 사상을 토대로 정립된 카스트 제도에 따라 명

30) 初期佛典에서는 봄다가 성도 직후 归依處와 傳法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주석서 (SA.i.203)에 따르면 귀의처에 대한 고민에 빠진 때는 成道 후 다섯 번째 칠 일(pāñcama sattāha)이며, 다른 주석서(MA.ii.181~186)에 따르면 成道 후 $7 \times 7 = 49$ 일이 흐른 뒤 여덟 번째 칠 일에 傳法을 주저하는 恩惟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1)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dhamma)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존중 경 (Gārava Sutta, S6:2)』, 7.

32) 「법의 비유경(Alagaddūpama Sutta, M22), 13~14.」

33) 폴 윌리엄스, 앤서니 트라이브, 「인도불교사상」, 공만식 역, 씨아이알, 2009, p.52.

백한 불평등 체제를 고수해왔다.³⁴⁾ 봇다는 이러한 계급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인물이다. 초기불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³⁵⁾

불교는 이러한 사상을 초석으로 기원 전 4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인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동남아의 여러 나라로 세력을 넓혀가며 크게 융성했다. 그러나 교파분열 등의 이유로 7세기경 인도에서 쇠퇴하고, 10세기 이슬람교가 출현할 무렵 살아 있는 종교의 입지를 잃고 만다.

그러나 봇다의 평등 정신만은 아직도 생생하게 숨쉬고 있으며, 현대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가촉천민 출신 법무부 장관이자 ‘신불교新佛教 운동 (Neo-Buddhism, New Buddhism)’³⁶⁾의 주역인 암베드카르(Ambedkar)³⁷⁾가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오랜 세월에 걸친 불가촉천민 해방운동을 통해 그는 힌두교 아래에서의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후 암베드카르는 불교를 지주로 삼아 신불교 운동을 개시하기에 이른다.

그는 특히 불교정신이 자유·평등·우애에 기초하며, 합리성과 도덕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암베드카르는 1956년 10월 14일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의 나그푸르(Nagpur) 시市에서 열린 불교 개종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나는 인간과 인간의 발달에 해로운 힌두교를 벼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평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종교로 불교를 택합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봇다의 종교는 유일한 침종교입니다. 나는 (정신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엄숙히 선언하고 단언하건대 지금 이후로 나의 일생을 봇다와 그의 법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³⁸⁾

이 날 운집했던 80만여명 가운데 무려 62.5%에 달하는 50만여명이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 2600여년 전 봇다가 일으킨 개혁의 바람이 현대 사회까지 전승된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초기불전에 드러난 봇다의 교설과 행적을 통해 대승 비불설大乘 非佛說 논쟁을 가라앉힐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연구과제다.

봇다 그 자신이 말했듯³⁹⁾ 모든 불교 교설은 사성제로 집약된다. 봇다는 다각도적 조망을 통해 차

34) 「리그베다」에 따르면 태초에 우주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 푸루샤가 자신을 회생하여 인류를 창조했는데, 푸루샤의 입은 사제인 브라만이 되었고 팔은 군인계층 크사트리아가 되었다. 허벅지에서는 상인 계급 바이사가, 두 발에서는 노예인 수드라 계층이 탄생하였다. 나렌드라 자다브, 「신도 버린 사람들」, 강수정 역, 김영사, 2007, p.10.

35) 법정스님 역, 「숫타니파타 (Sutta nipāta)», 142, 샘터, 1991, p.48.

36) 암베드카르를 따라 개종한 하층민들의 불교 신앙 운동을 지칭하는 말.

37) 브힐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인도의 사회개혁운동가이자 정치가. 인도 독립 후 공화국 헌법제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신분차별을 정당화한 힌두교를 버리고 자유와 평등을 설법하는 불교에 귀의했다. 현대 인도 불교도들은 암베드카르의 이름인 빔라오(Bhimrao)를 따서 “비맘 샤라남 갓차미(Bhimam ūraṇam gacchami, 빔라오에게 귀의 합니다.)”라는 구절을 귀경계歸敬偈에 편입시킬 정도로 그를 신봉한다.

38) Thus Spoke Ambedkar Vol.2, P.148.

등화된 교설을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방편 시설했다. 이는 곧 중생도 깨달음의 인연만 닿는다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교화 정신은 이후 불성사상佛性思想으로 귀결되는 초·중기 대승불교 시대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⁴⁰⁾과 화엄사상華嚴思想⁴¹⁾의 성립 근거가 되는 것이다. ♡

〈 용어설명 〉

- D Dīgha Nikāya
- M Majjhima Nikāya
- S Samyutta Nikāya
- MA Majjhima Nikāya Atṭhakāth = Papañcasūdanī (중부 주석서)
- SA Samyutta Nikāya Atṭhakathā = Sāratthappakāsinī (상등부 주석서)

- 나카무라 하지메, 타나베 쇼유지, 「붓다, 그 삶과 사상」, 이미령 역, 무우수, 2002
- 곽철환,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 김미숙, 「인도 불교사-붓다에서 암베드카르까지 : 살림자식총서 309」, 살림출판사, 2007
- 각목스님, 「초기불교이해」, 초기불전연구원, 2010
- 정승석, 「인도신학의 고행주의적 전개」, 인도철학회, 1997
- 이명권,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 불교」, 서강대학교, 2004
- 김준호, 「초기불교 선정설의 체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8
- 김선근, 「인도 고대종교의 회통으로서의 석가모니의 인식과 실천」, 한국불교학회, 2011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그 외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 참고문헌 〉

* 본고에 수록된 원전元典은 모두 각목스님·대림스님 역譯, 초기불전연구원에서 펴낸 니까야를 인용했습니다. 각 챕터 번호로 구분하여 페이지는 생략합니다.

- 산기원일, 「인도사회와 신불교운동」, 전재성, 하호성 역, 한길사, 1983
- 하야시마 코쇼, 타카사키 지키도, 하라 미노루, 마에다 션가쿠, 「인도철학의 역사」, 정호영 역, 민족사, 1988
- B. R. 암베드카르, 「붓다와 그 가르침」, 박희준·김기은 역, 민족사, 1991
- 람 사완 샤르마, 「인도 고대사」, 이광수 역, 김영사,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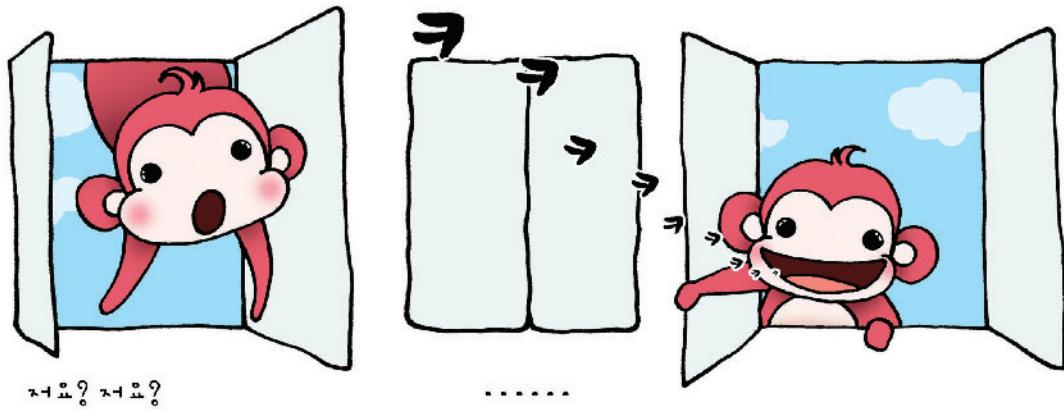
39) “유익한 법[善法]은 그 어떤 것인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에 내포됩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Mahā-hattipadopama Sutta, M28)」, 2.(Dharmadhatu)이라고 한다. 즉 하나를 들면 거기에 전우주가 관계되고, 一切(만물 전체)가 개개의 사물 속에 포함되며, 무한한 작용을 주고

40) 如來藏思想은 凡夫의 마음에 대해 비록 迷惑에 뒤덮여 있지만 본성은 청정하며(自性清淨心), 번뇌를 여읜 상태가 如來라고 주장한다.

41) 華嚴의 法界緣起에 따르면 이 現象世界는 法身으로서의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Vairocana Buddha·대일여래)이 顯身했기 때문에 法界

산산아, 산산아,





육창일원六窓一猿

중읍홍은中昌洪恩 선사에게 양산仰山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성佛性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위해 비유 하나를 들겠다. 마치 한 방에 여섯 개의 창이 있고 그 안에 원숭이 한 마리를 두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산산山山아!’ 하고 말하면 원숭이가 곧 대꾸한다. 이와 같이 여섯 창문에서 모두 부르면 모두가 대꾸한다.”

양산이 다시 물었다.

“안에 있는 원숭이가 잠을 잘 때엔 어찌합니까?”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불들고는 말하였다.

“산산아, 나와 네가 만났구나.”



게으름

능관 / 대교과

삶의 가장 화려한 순간처럼 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푸르름이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게으름이란 주제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대교반 능관입니다.

행자시설 처음 삭발을 하고 입승스님께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그것은 성철 스님의 수좌 5계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수좌가 성철 스님께 질문을 합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성철 스님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공부가 안 될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 수좌 5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강원생활에 맞게 바꾸어 적용해 보면, 첫째, 6시간 더는 자지 말고 둘째, 꼭 필요한 말 이외의 잡담은 하지 말고 셋째, 부처님경 이외의 책은 보지 말고 넷째, 간식하지 말고 다섯째, 돌아다니지 말라입니다. 수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자신 있게 이것쯤은 지킬 수 있다고 하고 돌아가지만 이것을 지킨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결국 지금까지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공부법은 매우 간단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의 5계와는 반대로 생활하는 데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쉬운 방법은 무시하고 간과하면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푸념하거나, 노력하지는 않고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특히 잠이 많고 여러 가지 일을 귀찮아하며 오늘 할 일도 내일로 미루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도반들이 저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의 5계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게으름 때문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는 방일하면 열반에 갈 길이 없어진다. 방일에는 열세 가지 과실이 있으니, 세상의 악한 행위를 즐겨하고, 무익한 말을 즐겨 말하며, 잠을 즐기고, 세속 일을 즐겨 말함이요, 나쁜 벗을 가까이하고, 항상 게으르고 태만하며, 남을 경멸함이요, 무엇을 들으면 이내 잊어버리고, 변두리 지역에 살게 되며, 육근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의 포로가 되며,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소견이 바르지 못함이다. 방일의 과실로 도道와 어긋나 가르침의 다리를 끊고 온갖 망념妄念을 이끌어 낸다. 악취에 떨어지는 일은 방일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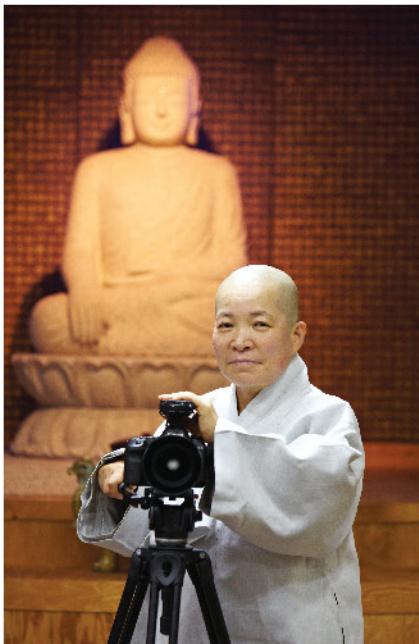
그렇다면 수행하는데 왜 게으르고 나태함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이가 물을 생각하듯, 배고픈 이가 밥을 생각하듯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심의 문제입니다. 신심은 정진과 비례한다고 했는데, 해탈 열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심할 때의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면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신심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차츰 회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재발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출가를 했는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유로운 길이 생사 해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매일 재발심해야 합니다.

게으른 습관을 떨쳐버리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5계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먹고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강원생활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경을 다 외우고도 그것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던 아난처럼 아무리 경을 다 이해하고 외운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충만한 신심으로 게으른 생각, 방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정진하여 스스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불법의 심오하고 깊은 뜻을 영화로 제작, 전 세계에 보급해, “LOOKING 하는 영화에서 THINKING 하는 영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며 영화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대해 스님.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고 비만, 유산 분쟁, 죽음,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스님은 인생연출법을 일러주는 단편영화 85편을 만들었다. 대해 스님의 이런 원력으로 세계최대 기독교영화제에 대해 스님의 영화가 초청 상영되었다고 한다. 기독교영화만 참가할 수 있는 이 영화제에 불교의 스님이 만든 영화가 상영된 것은 영화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어떤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대해 스님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초여름이 도래한 이른 아침, 스님이 계신 경산의 국제선원을 방문했다.



LOOKING 하는 영화에서 THINKING 하는 영화로

- 불교영화 감독 대해 스님 -

스님의 영화는 인터넷을 통해 접해보았습니다. 짧은 단편 영화였지만,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스님으로서 영화 제작에 나선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며 쉽지 않은 일이라 판단됩니다. 영화제작에 나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은 수행을 하여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방대하게 제도할 수 있고, 또한 확실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영상 시대라 영화 하나만 만들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므로 즉, 생명의 원리(불법)를 영화로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제도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고 방대한 거죠. 사실 모든 생명은 본질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질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고 현상에만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한 아이에게서 ‘마음공부를 하면 학교공부를 안해도 돼요?’라는 질문을 받고 ‘마음공부와 학교공부가 둘이 아닌데 둘로 보고 있으니 이를 하나로 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담은 생명교과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본질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교과서를 세계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배우게 하여 세상이 저절로 불국토가 되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시대와 사람들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상시대입니다. 영상시대에는 이미 말과 글로 사고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화 하여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포교가 현재의 시대에 부합하는 방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불교영화라는 문화 콘텐츠가 포교에 끼칠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불교영화란 즉 불법을 적용하여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생명의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는 본질은 보이지 않고 현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 이면의 본질을 알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 이면의 본질을 모으면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교영화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본질과 본질의 특성 그리고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 즉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이 현상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또한 현상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현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의 삶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영화를 만들 수 있는 소재는 본질을 안다면 티끌 하나 빠지지 않고 지금 펼쳐진 삶과 만상의 모든 것이다 영화의 소재가 되며 특히 불법을 말하는 경전이다 불교영화의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영화는 아무나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교영화는 생명체에게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모르고 만들면 잘못된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교영화가 바른 법이라기보다 흥미위주로 만들어서 오히려 불교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가지고 불법은 없고 잘못된 법, 즉 다른 종교의 코드에 불교소재를 넣어서 마치 불교인 양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불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게 되고 또한 타 종교에서 오히려 흥미로워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을 아는 사람이 불법을 담아서 만든 진짜 불교영화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스님을 통해 우리가 수행하고 포교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님의 앞으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요?

저는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연구소를 세웠고 생명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 전 세계를 포교를 하고, 영화로 생명의 근원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영화 학교를 만들어 전 세계 영화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전부 생명의 원리를 영화로 만들도록 해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생명의 원리를 배워서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인스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학인스님들에게…

이미 부처님께서 생명의 진리를 경전에 다 알 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 경전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화엄경에도 십행품을 보면 십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이 나오죠.

보시는 내가 만약 왕이라 해도 내 주변의 모든 재산이나 처자식을 주고, 몸까지 주라하죠. 그런데 그렇게 실천을 하느냐는 거죠.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도 색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공에서 색을 창조하고요. 내가 한 모든 것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떠나서 청정해지는 거거든요.

또 인욕은 중생들이 오만 욕설을 해도 못 견디고 마음이 움직이거나 반응을 나타내면 내가 참지 못하고 수행을 못한 것이니 인욕을 해라. 그리고 수천만 가지 병기를 들고 와서 찌른다 할지라도 쉽다 하지 말고 인욕을 해라.

그리고 부처님 전생에 보면 가리왕이 궁녀들을 테리고 사냥을 했는데, 인욕선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궁녀들이 흄모해서 빠져 있으니까 네가 내 여인들을 다 테리고 갔다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였는데, 나는 아상 인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것은 부처님 전생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는 얘기에요. 부처 되기 前이죠.

수행이란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여 예를 들어 인욕을 하는 것도 나를 건드리니까 인욕할 것이 있는 것 이지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답안지 갖다가 놓고 문제를 풀면 답이 빨리 나오듯이 경전에 써 놓은 부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화엄경, 육조단경, 금강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我)가 없는 것을 잘 생각하고 길을 잡아서 실천하면 됩니다. 수행을 하시다 구체적 사례를 보고 싶으시면 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웃음)

스님은 “자신의 삶을 3류 영화로 만들 건가, 불후의 명작으로 만들 건가. 그건 생명의 연출법을 아느냐에 달렸다”고 하시며 불교 영화라는 것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하셨다. 운문사에서도 무엇이 진짜 나인가를 책을 때 장소도 협찬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었다고 하시며 앞으로 스님들이 출연할 영화도 많고, 절이 나올 영화도 많으니 함께 영화로 불국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

대해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선원장 / 영화 감독 / 교육자

- 80여편의 영화 제작, 40여 차례 국제 영화상 수상.
- 2012년 이탈리아 콘코르토Concorso 국제영화제 감독 초대전 / 2013년 러시아의 '백야(White Nights) 국제영화제' 감독 초대전.
- 언어, 수학 등 정규교과목 생명교과서 제작. 러시아 청소년 인성교육 진행 중
- 저서 : 「생명의 연출」 「수승한 사람이 되는 순서도」 등
- 저서 : 역사, 「대방광불화엄경(60권 - 80화엄 완역)」, 「금강경」, 「육조 단경」, 「능엄경(10권)」, 「대승기신론」 등
- 대표영화 : 무엇이 진짜 나인가(운문사 촬영), 전상전하 슈퍼감, 대방 광불화엄경, 인과해탈, 대방광불 논리회로, 부동심, 소크라테스의 유언, 이해가 되어야 살이 빠진다, 본질의 시나리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80여편



명현 / 한문불전대학원 2학년

일념심청정 一念心清淨
처처연화개 處處蓮花開
일화일정토 一華一淨土
일토일여래 一土一如來”

한 생각 그 마음이 청정하면
곳곳에 연꽃이 피나니,
한 꽃이 한 정토요
한 정토가 한 여래니라”

- 방거사龐居士 -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살자!

선우/사진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시간들은 현재 삶이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에서는 쉽게 갖게 되지 않는 듯합니다. 아마도 외롭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생각들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스스로가 대견한 마음에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또한 본인 스스로일 것입니다.

자신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아끌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게 힘쓸려 스스로를 자학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그 마음은 힘들고 생활 또한 피폐해질까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 수행자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절을 처음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뵙게 되더라도 웬지 어려운 분위기에 먼저 말문을 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 또한 절엔 자주 다녀도 웬지 모르게 스님이 무서워 피해 다

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께서 먼저 말 한 번 걸어주시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도 감사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씩 스님에 대한 인식과 절의 문턱이 낮아짐을 느낍니다. 이런 저의 경험처럼 힘들고 지칠 때 편안히 대해줬던 스님 생각에 발길이 저절로 절로 향하게 되더라는 보살님들의 말에서 포교가 멀리 있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은 누가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해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사유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하면 명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그 불교식의 명상(참선)을 제대로 받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 두루 퍼져 있는 기수련이나, 많이 보급되어진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오롯이 나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를 떠나서 어떠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큰 활력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것 또한 스스로의 몽임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편안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영상관을 꾸며 참선의 의미, 방법, 이득 등에 관한 내용을 체험을 하면서(절의 인력부족으로 대면방식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영상관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설치해 자동 넘김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도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한 ‘명상, 참선이 이렇게 쉽구나’를 배우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내가 변해야 주위가 행복하듯 주위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라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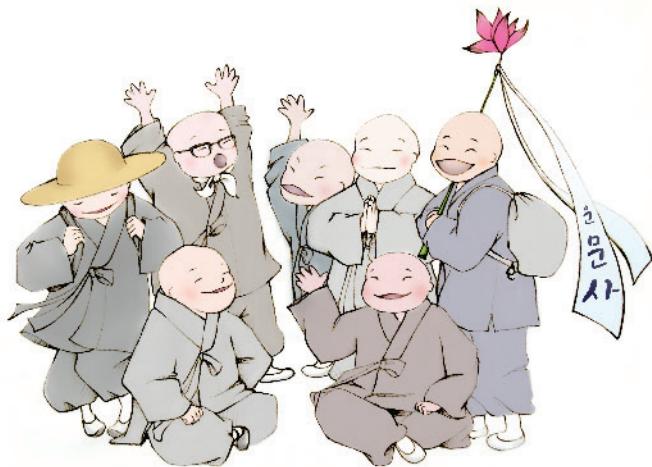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분노하는 나를 불잡고 싶을 때 화나서 폭발하려는 그 찰나에 심호흡과 수식관을 해 봄으로써(처음부터 잘되지 않으니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더욱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효과를 얻는다면 ‘나도 참을 수 있네’, ‘나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생각만 해도 주위가 환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으로 살아가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러한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그려셨듯 수행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이 고통과 난관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지금 불자들의 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난관도 자연스레 이겨나가리라 생각됩니다. ☩

대중 속에서의 ‘나’

지우 / 사미니파



당신 눈에는 오로지 학인들만 보인다 하시던, 먼저 가신 어른스님께서 운문사 도량에 남기신 온온한 향기처럼 녹음도 점점 짙어만 갑니다. 이제 봄도 끝인가 봅니다. 뜨거워지는 태양에 여름철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이번 봄철은 다른 때보다 짧았고, 신입생 방부 들인지 이제 2달 남짓인데, 예상 밖의 큰일을 치룬 탓일까요? 운문사에서 몇 철은 지낸 듯 강원 입학 전이 이젠 까마득합니다.

방학을 하고 이 넓은 도량에 새내기 치문반만 남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나마 반은 4박 5일 출타로 조용한 도량은 그야말로 ‘절집’ 같이 적막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 요즘, 제가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행자 입문교육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 본사에서 모인 행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행자님이 운문사 자랑 하나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운문사가 좋았고, 많은 스님들이 운문사를 가며, 훌륭한 어른스님이 계시기에, 제 나름대로 운문사를 출가본사로 정한 이유가 되었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한마디로 운문사 자랑을 하려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글쎄, 뭐라고 말해야 하지?’ 머릿속에는 이 생각만이 맴돌 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대중 스님들께서는 운문사의 자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수려한 자연경관, 정갈하게 잘 정돈된 넓은 도량, 엄격한 학풍, 불철주야로 학인들을 돌보시며 운문사 강원을 일궈 오신 회주스님…….

운문사 강원을 오지 않아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책만 찾아봐도 운문사에 대한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운문사에 살게 되고서야 비로소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반듯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 수행하고 있는 운문사의 청정한 대중이 운문사의 자랑이자 보물 아닐까요?

수계교육 이후 운문사를 떠나 있으면서 운문사처럼 많은 대중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좌충우돌,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실수들을 연발하고 지내면서, 그동안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지냈다는 망상을했던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감싸주고 가르쳐 준, 저의 못난 부분을 가르쳐준 대중 스님들과 행자도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키워간 저의 망상이 부끄러웠습니다. 강원에 입학하게 되면 내가 잘났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보다는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대중들 속에 살면서 서로 탁마하고 배우고, 습의를 익히고,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또 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에 매일매일 설레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빈자리를 느끼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말처럼 저는 요즘 대중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상반스님들이, 그리고 우리 반 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지냈고 이 도량이 어떻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외출하시면 혼자 자유라는 들뜸에 잠시 신나다가도 곧 쓸쓸함에 사무룩 해졌던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만의 자유가 아닌 대중의 든든한 울타리인가 봅니다.

운문사에서 첫 철이 끝날 즈음인 지금,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만 마음은 엇나가, 저라는 상을 높이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면서 울고 웃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제가 강원 입학 전 다짐했던 것을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려합니다. 몸만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대중 속에 녹아들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길, 그리고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저 또한 모든 이를 포용할 수 있길 발원합니다. 운문사 강원에 입학해서, 대중과 함께라서 저는 매일매일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



혜능 / 한문불전대학원 2학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과 물질문명의 발달 안에서 매우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 등장하는 수많은 심리치유프로그램들.

주관적인 고통과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사람과 치유자로 등장하는 많은 이들은 어떤 인간관과 존재론을 기초로 하고 있을까요.

분인이 스스로 치유대상자라 여기는 사회적 현상. 사람들의 주관적이면서 아주 개인적인 고통과 불행을 마주할 때, 현재를 사는 승가는 어떠한 맞춤법문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나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는 이미 인문서나 심리학 에세이에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이면서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존재에 대한 다른 시선과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다룬 책이란 점에서 우리가 한 번 읽어볼 만한 철학에세이입니다.

‘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묻는 것과 같아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통찰로 안내되어지고, 사회와 實在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목표에 따라 실천해가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사회와 연결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無智가 관계 안에서 늘 소외된 삶을 살게 한다는 통찰을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통해 얻게 됩니다.

‘개인個人에서 분인分子으로’.

종교적, 철학적, 심리학적 용어나 해석을 드러내지 않고도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인 ‘분인주의’를 만들어 펼쳐내는 그 깊은 통찰이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떤 개념을 창안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사유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분인론’이 내게는 선서이션입니다.

‘분인’이란 무엇인가?

“한 명의 인간은 ‘나눌 수 없는(individual)’ 존재가 아니라 복수로 ‘나눌 수 있는(dividual)’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진정한 나’, 수미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분인주의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작가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 유입된 여러 개념 중에서도 ‘개인(individual)’ 또는 ‘개인주의’라는 어휘는 일본이 근대화에 뒤쳐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개념의 발상 자체가 서양문화의 독특함에서 유래된 것이며, 일신교인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분석을 좋아하는 서양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을 빌려 전체로부터 고립시키는 미국 민주주의 속의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논하여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히라노는 ‘진정한 나’라는 관념이 일종의 “신화”라고 못 박습니다.

‘진정한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내 안에 어디에 그것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 헤매고 괴로워하는 것과 관념 속에 ‘진짜와 가짜’라는 프레임 속에 포박해버린다 말합니다.

작가는 ‘分人’을 통해 자아의 해체와 통합을 이루는 치유적 자아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分化化’ 된다고 하거나, ‘구성비율’ 이란 선택과정을 통해 ‘개성화’의 창조과정을 이루어냅니다. 즉 자기와 사회의 완성된 인격체를 등장시킵니다.

분인주의는 ‘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철저하게 타인과의 관련 속에서만 사유하는 관점이고, 자신과 타인을 보다 더 성숙하게 사유할 수 있게 하는 사려 깊은 발상으로 보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교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인간관에서 현실적 인간은 연기의 소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적 인간은 볶다 석가모니이며, 보살은 자아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동시에 구현해 가는 불교적 구도자입니다. 보살은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인격이고 보살행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자로서 행위의 주체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인간관과 연기법, 존재론 그리고 ‘나를 깨닫는 것’을 현대적 개념과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히라노 게이치로’의 『나란 무엇인가』.

이 책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탄생계인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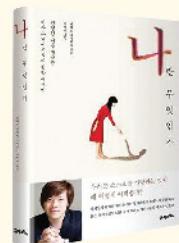
그 뜻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독존(獨尊, 홀로 존귀하다)’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책을 읽는 동안 화엄법계의 장엄세계를 보는 듯한 법열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불법이 오래오래 머물기를 발원하며… ☺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당신은 인연입니까

종윤 / 대교과

오늘도 시간은 흐른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체만물이 모두 연기법 속에서 '인연'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인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기다린다. 내가 당신의 소중한 인연이기를, 당신이 나의 특별한 인연이기를.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인연'다운 인연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러나 '귀한 인연'은 바로 지금, 내가 만들어 갈 일이다. 나의 진실한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뿐이다.

此有故彼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生故彼生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
此無故彼無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此滅故彼滅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
- 짊아함경 12권, 299 연기법경 -

위에 적은 아함경 속의 내용은 인연법의 원리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경전 속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연기법 속의 인因, 즉 직접적인 원인을 의미하고,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연緣으로서, 간접적인 원인, 즉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원인인 인因과 조건인 연緣이 만나서 과果, 즉 결과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씨앗을 예로 들자면, 씨앗의 존재 자체는 어떤 것을 움트게 할 수 있는 그 자체 '원인(因)'이다. 여기에 흙과 물, 햇빛, 공기 등은 씨앗을 성장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緣)'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과 '연'이 만나, 새싹이 움트고, 열매를 맺는 과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果 뒤엔 보報라고 하는 깊음, 즉 결과 뒤에 남는 작용도 나타난다. 이런 인연과 보因緣果報는 피할 수 없고, 이미 서로 화합하여 나타난 '인'과 '연'은 마음대로 사라지게 할 수도 없으며, 그 인연에 따라 보이는 결과 역시 돌이킬 수 없다. 나에게 나타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본들, 이는 짐작이 되고 마음만 아플 뿐이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소중한 시간마저 잊을 뿐이다.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고통은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 태중에서 시작된 것,
유아기 때 형성된 것, 어릴 때 형성된 것,
어제부터 시작된 것, 방금 전에 시작된 것……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연이 겹치고 겹쳐 지금 작용하는 것이다.
즉,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

- 법륜 스님 -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난 걸까?', '그 사람(일)은 왜 그런 걸까?' 라고. 그런데 감정적으로 '왜?'를 묻기 전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상황 혹은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 자체에 대해 깊이 사유해 본적이 있는가? '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먼저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한 적이 있었는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어난 일만 불잡고 '왜'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감정적으로 따져 묻는 것만 멈춰도, 한결 사는 게 편안해지지 않을까?

집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서는 온통 괴로움뿐인 데다 리가 생기며, 무명이 멀하기 때문에 행이 멀하고 나아가서는 온통 괴로움뿐인 데다 리가 멀한다'고.

결국 우리들 '인연'의 근본적 원인은 무명으로부터 생겨난다. 그것이 행을 일으키고, 그 결과에 따라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무명도 결국엔 멀한다고 한다. 우리들의 '자작'이나 '깨달음' 덕분에 멀할 수도 있지만, 시절인연이 다하여, 멀하기도 한다.

원초적 '무명' 자체를 없애는 건 너무나 어렵고, 그것이 당장은 안 되어, 수없는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삶의 수순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설사 힘들게 한다고 해도, '인연'이 되어 왔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다가오는 인연은 막을 수 없고, 떠나가는 인연도 우리는 잡을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내면엔 어떤 '원인'이 되는 씨앗을 분명히 품고 있었다. 그것이 '연緣'과 만나 '因果'를 맺었을 뿐이다. 특별한 의미로 부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일 일이다. 다만, 그 결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인연'으로서 회향하기를 발원할 일이다.

오늘도 시간은 흐른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체만물이 모두 연기법 속에서 '인연'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인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기다린다. 내가 당신의 소중한 인연이기를, 당신이 나의 특별한 인연이기를.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인연다운 인연'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러나 '귀한 인연'은 바로 지금, 내가 만들어 갈 일이다. 나의 진실한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뿐이다. ☩



▲ 흥륜 학장스님 49재



▲ 신화랑단 동아리 체험학습



▲ 여름철 결계포살



▲ 강백 덕민 스님 특강



▲ 여름불교학교

운문소식

- 6월 22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5일 2015년 5월 8일 입적하신 고 흥륜 학장스님의 49재를 대웅보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 6월 27일 불교레크레이션 협회에서 주최한 제55회 불교레크레이션 지도자 강습회에 교회부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7월 1일 열불수업을 시작으로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7월 2일 청도군 신화랑단 연구(시범) 학교로 지정된 금천초등학교에서 화랑경신 계승을 위한 '신화랑단 동아리 체험학습'이 있었습니다.
- 7월 3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7월 8일 불국사 학장스님이신 덕민 스님의 '광자선사 목조명'에 대한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5일, 22일, 29일 이번 여름철엔 매주 수요일마다 강백 덕민 스님의 '노자도 덕경'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6일 일진 학장스님께서 대구광역시 육아보육지원센터 초청,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여성 행복, 세상 행복' 주제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 7월 17일 여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3일 일진 학장스님께서 대구 중구청 봉사 대학에서 '지구를 살리는 자원봉사' 주제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 7월 24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5일~7월 26일 제36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감성 특톡(talk)'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명상법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참마음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8월 6일 2015년 6월 19일 입적하신 고 문수선원 선원장 혜은 스님의 49재가 대웅보전에서 봉행됩니다..
- 8월 10일 32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오백전 100일 기도 접수 안내

입재 : 9월 13일 일요일(음 8월 1일)

회향 : 12월 20일 일요일(음 11월 10일)

방문접수, 홈페이지 접수 가능

도와주신 분

- 종윤 스님 • 김현일한의원 • 박형수한의원 • 임순례감독님 • 이기태
- 윤금자 • 정해옥 • 김종덕 • 유현호 • 이정숙 • 이종근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대웅보전〈관세음보살보문품 변상도〉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운갓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듣고 오직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살피시어
모두다 그곳에서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